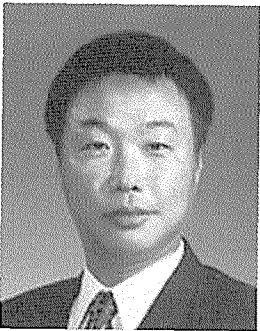


## 석유협회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장 현 준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우선 석유협회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그 동안 실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정유 산업 초기의 단순 정제형에서 이제는 고도의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유 도입체계에서 벗어나 직접 해외에서 원유를 개발하여 도입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내수산업에서 점차 탈피하여 석유제품의 수출비중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습니다.

국내 석유산업과 관련한 제도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 제도변화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의 자율화, 정제시설 증설에 관한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석유제품 수출입의 규제 완화, 석유제품 유통의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 및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도 국내 석유산업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국내 석유시장 참여자들은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전진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석유협회보는 그동안 중심자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석유인 모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시장 참여자들과 소비자들은 20세의 청년기를 맞이한 석유협회보에 대하여 향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석유협회보는 국내 석유산업의 정확한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적시에 알리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석유산업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석유산업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 신뢰야말로 석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석유협회보는 그동안 중심자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석유인 모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시장 참여자들과 소비자들은 20세의 청년기를 맞이한 석유협회보에 대하여 향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유협회보는 국내 석유산업의 정확한 모습을 소비자에게 적시에 알리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석유협회보는 공정한 시장질서(fair rule of game)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표표시제의 변화 및 석유제품 수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강조되어야 할 역할입니다. 지나친 과당 경쟁은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극히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 석유시장의 핵심적인 정보도 적기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석유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된 현 상황에서 국제 석유시장의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은 석유협회보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히 국제 석유개발시장에서의 주요 동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정유회사들의 석유개발부문 진출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적극 수행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면서 석유협회는 회원사간의 입장을 적극 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의 관련부처를 적극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유협회보는 석유시장 참여자들의 대화 및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유회사, 대리점, 주유소, 석유제품 수입회사, 소비자, 언론, 정부 등 모든 이들이 각자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뜨거운 토론의 장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석유협회보의 앞날은 매우 밝은 것이며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및 소비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뒤따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석유협회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